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 느끼며 살아갈 대안 제시”

글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아산재단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권대봉 고려대 교수(진행)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차승은 수원대 교수, 신인철 서울대 연구교수,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이 '가족시간과 삶의 질' '일-여가의 변화와 행복'이라는 3·4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7년 예산은 약 401조 원이다.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130조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한다. 경제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고, 전통적인 복지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됐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한 국민들 중에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정부가 사회복지에 위한 예산 증대 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도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지'란 무엇인지 진단하고,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

단하고 '사회복지와 행복'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에는 이홍구·이춘림·장정자·이상주·김종인·한승주·최재성(종합토론 진행) 이사 등 아산재단 임원진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이관 전 과학기술처 장관, 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자문위원, 박인숙 국회의원, 이승규 아산의료원장과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권대봉(고려대 교육학과, 제1~4주제 발표 진행)·김형준(명지대 교양학부)·전상인(서울대 환경계획과)·최혜경(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오승환 한국사회복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아산재단이 창립 4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아산재단을 세우신 아버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다.

사협회장과 권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회장·신정애 한국자원봉사포럼 사무총장·윤종웅 하나금융그룹재단 상근이사·전병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등 학계와 관련 전문가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인사말과 한준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1~4주제인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복지의 기능’ ‘지방정부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의 삶의 질’ ‘가족시간과 삶의 질’ ‘일-여가의 변화와 행복’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진단하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건강한 세상 만드는 아산재단”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나흘 뒤인 7월 1일이면 아산재단이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아버님께서도 복지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던 시기에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자고 하시면서 아산재단을 설립하셨는데, 어느덧 장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감회가 새롭다. 아버님은 “어려운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그리고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인간의 예의”라고 자주 말씀하셨다”고 소회를 밝힌 뒤 아산재단의 의료사업 등을 소개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보성, 정읍, 홍천, 보령, 영덕, 강릉에 있는 지역병원의 모병원 역할을 하면서 11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원’으로 선정됐다.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갖고 찾아오는 병원으로서 주요 암과 심장질환 및 장기이식 분야에서 세계적인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아산병원은 존경받는 병원으로서 자만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뒤 “아

산상과 아산의학상의 시장도 따뜻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아산재단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설립된 아산재단은 앞으로 의료와 사회복지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힌 정몽준 이사장은 “오늘 심포지엄에서의 좋은 논의를 통해 아산재단은 물론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한준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인의 마음, 복지, 행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1~4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각 주제의 발표와 토론은 1주제는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조상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주제는 김희성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선임연구원과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3주제는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와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4주제는 신인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와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에는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기조연설과 1~4주제의 발표자와 토론자 8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기조연설과 1~4주제의 요지들이다.

기조연설 : 한국인의 마음, 복지, 행복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들 중에서 물질적 조건의 영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돼왔다. 경제적, 물질적 조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974년 경제학자 이스털린(Easterlin)은 ‘행복의 정도는 소득이 증가해도 일정 수준 이상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인당 GDP의 증가는 일정 수준까지는 행복을 높이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기초연설을 하는 모습. 심포지엄에는 학계와 관련 전문가 160여 명이 참석했다(왼쪽부터).

행복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일인당 GDP는 3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고 평균적 행복은 10점 만점에서 6점에 조금 못 미친다. 주목할 사실은 한국이 비슷한 경제적 조건의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행복의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경제성장이 행복을 높이기 어렵게 된 것은 왜일까. 더 나아가 왜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처럼 비슷한 경제적, 물질적 수준의 나라들에 비해 행복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비교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비교성향은 교육과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강해지며, 비교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이타주의 성향도 낮아져서 결국 행복감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주목할 점은 전반적으로 젊은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삶의 만족이 더 낮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물질적 결핍이 행복을 저해했다면 지금은 그에 못지 않게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이 행복을 저해하게 됐다. 이렇게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야말로 정부와 민간의 복지서비스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한국에서는 고용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높아져 왔다. 최근 들어서는 청년들이 취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 힘들어 한다면, 중장년층은 자녀에 대한 걱정과 본인의 노후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산재단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품목이 돼주며 복지의 불모지와 같은 한국에서 복지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40년간의 눈부신 성과를 넘어 아산재단이 맡아야 할 복지사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아산재단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마음을 갖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

1주제 :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복지의 기능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국민 행복에 대해 사회복지전문직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사회복지전문가가 경험한 유데모니아(eudaimonia)를 분석했다. 유데모니아란 장기적 목적성을 가진 가치적 행복을 의미한다.

그 결과 첫째, 사회복지사는 국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 대상자의 각 사례가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사회복지가 추구한 가치는 ‘인간존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삶의 질 향상’, ‘클라이언트의 변화’, ‘평등한 권리와 기회 보장’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직의 가치는 사회복지사의 유데모니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복지전문가의 행복은 10점 만점에 7.00점으로 일반 국민 6.1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가 경험한 행복은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사람에 대한 가치 실현’, ‘역량강화 및 자아 실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복하지 않은 경험은 ‘희생 강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열악한 보수’, ‘많은 업무’와 ‘소진’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점은 첫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높은 가치를 가질수록 높은 유데모니아를 경험하고, 근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게 느낄수록 높은 유데모니아를 경험했다. 둘째,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직의 유데모니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제언은 첫째, 국민 행복에 이바지하는 사회복지에 대해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국민 행복을 위해 사회



1, 2주제인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복지의 기능'과 '지방정부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담당한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조상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희성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전임연구원과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왼쪽부터).

복지의 가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셋째, 사회복지와 국민 행복을 심층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유데모니아 측정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2주제 : 지방정부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의 삶의 질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역별로 다르게 제공되면서 노인과 여성 등 서비스 대상자의 삶의 질 역시 지역 단위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따르면 만성질환 유병률, 사회활동이나 문화활동 참여율, 주관적 건강 및 경제상태 등이 지역 단위별로 제각각이었다. 이러한 삶의 질 격차는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지출, 즉 복지 노력 여하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노인 영역의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고령화연구 패널'(2006년·2014년) 원자료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발굴해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노인의 건강상태는 다소 악화했고, 사회활동은 정체된 반면, 문화활동은 다소 활발해졌다. 주관적 삶의 지표는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과 유사하게 정체되거나 소폭 상승했지만, 지방정부간 삶의 질 편차는 확대되는 양상이다.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2006년 61.823점으로 최상위권이던 대전이 2014년 소폭 상승한 65.514점인 반면, 2006년 55.067점으로 최하위권에 속한 서울은 2014년 51.882점으로 하락했다.

지방정부의 복지 불균형 완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복지 노력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복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해 지방정부 사회복지 사업의 대응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복지 노력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방식의 개편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일률적이고 의무적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특수성과 지방정부의 재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목표를 지닌 신청주의형 국고보조사업을 병행하는 것이다. 끝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효과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을 경감시키는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3주제 : 가족시간과 삶의 질

최근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의미하는 가족시간(family tim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업적 성공 못지않게 단란한 가족을 삶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커졌다. 그래서 수입이 적더라도 퇴근시간을 보장해주는 직업을 찾는 등 가족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2014년 전체 취업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371시간으로 가장 짧은 독일보다 연간 4개월을 더 일하는 셈이다.

자녀들도 시간에 쫓기기는 마찬가지다. 한국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 보니 가족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간을 보내는 '저녁이 있는 삶'은 꿈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행복감에 매우 중요하며, 친밀한 가족관계의 결집은 회복 탄력성(resilience) 형성에 치명적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경우 유일하게 삶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관련을 보여주는 활동이 혼자 종교 활동에 사용한 시간인데, 혼자 종교



3, 4주제인 '가족시간과 삶의 질'과 '일-여가의 변화와 행복'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와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신인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와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며, 혼자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감소한다. 남성 역시 혼자 종교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다.

4주제 : 일-여가의 변화와 행복

일은 목표를 세우고 힘을 투입하여 대상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단순한 놀이나 우연한 행동과 구별된다. 많은 경제적 보수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을 함으로써 인간은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되며,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무엇인가를 성취했으며 성공했다고 느끼게 한다.

일이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해결하는 필연의 영역이라면, 여가는 일에서 오는 피로를 해소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하며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자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양자는 상호 분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갈등의 관계로 인식되어 왔으며,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선 첫째,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일자리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통한 행복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 등을 높여 더욱 긍정적인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과 여가 그리고 행복 또는 삶의 만족이라는 3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적 관심이나 취미를 위한 시간'이라는 협의적 개념의 여가 뿐만 아니라 '가족, 타인 및 사회참여'를 위한 시간까지 확대한 광의적 개념의 여가를 적절히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일과 여가의 균형이 개인의 행복감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는 단행본으로 출판

아산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뜻에 따라 1977년 7월 1일 설립된 후 의료사업과 사회복지, 학술연구, 장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술심포지엄을 1979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아산재단은 1970년대 말부터 학술심포지엄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와 교육·환경·인권 등 사회발전과 관련된 주제를 공모해 대학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최근 국가 기관의 연구지원 금액이 증가하면서 아산재단의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교수 중심의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언론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연구 결과를 매년 개최하는 학술심포지엄의 주제로 다루어 정책에 반영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2016년 개선된 형식의 첫 번째 학술심포지엄이 열려서 '다문화 시대와 한국의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를 다루었고, 올해 그 두 번째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심포지엄의 연구 결과는 올 겨울에 단행본으로 간행될 예정이다. 📖